

안테나



김동진 편집장



2023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막

본회 주관, 코로나 이후 축산발전 도약의 계기로

2023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드디어 이달에 개막된다. 9월 6~8일 대구엑스코에서 전세계 11개국 208개 업체가 660개부

스 규모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본회가 주관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1991년 한국양계박람회가 처음 개최된 것이 축산박람회의 효시이다. 당시만 해도 자동차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였던 만큼 박람회 개최는 해외를 방문하지 않고도 외국의 제품들을 직접 국내에서 접할 수 있었기에 유럽과 미국의 제품, 특히 케이지, 환기, 환경제어 등 목마르던 국내 양계업계에 ‘오아시스’ 역할을 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계기로 2년마다 박람회가 열렸고 본회가 주관단체로 기틀을 만드는데 주도하였다. 처음 박람회가 열린 곳은 서울 올림픽공원내 펜싱 경기장이었다.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내부는 기자재, 약품, 사료 등이 전시되었고 야외에는 재래 닭까지 전시되면서 양계인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1997년 우리나라가 IMF외환위기를 맞이하여 개최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축산 전체가 참여하는 축산박람회로 확대 발전시키면서 지금의 국제축산박람회로 승화시켰다. 축산박람회가 발족된 이후에도 본회가 3차례(2011년까지) 주관단체로 활동하였고, 타 축종도 역할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2013년부터 낙농육우협회를 시작으로 한돈, 한우, 기자재협회가 각각 순번제로 돌아가며 주관을 맡아오고 있다. 이후 본회는 2011년, 2023년 축산박람회 주관단체로 활동하게 되면서 양계박람회부터 지금까지 8번째 박람회 주관을 맡게 되었다.

박람회 개최 장소도 변화가 많았다. 1회 양계박람회가 서울 잠실 올림픽경기장에서 개최된 이후 무역의 중심지 삼성 COEX로 옮겨 전문 전시회로 발돋움했고, 전국의 축산인들이 참여하기 좋은 대전 무역전시관에서 3차례 진행했으나 행사규모가 커지면서 축산박람회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충족시켜주는 대구 엑스코가 선정되어 지금까지 6차례 개최를 하게 되었다.

코로나 이후 규모있게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에서 새로운 신기술 등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축산발전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합리적인 계란가격 결정 가이드라인 모색해야

계란가격 DC, 후장기 여전

국내에서 발표되는 계란 가격 기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조사,

발표되고 있는 난가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DC와 후장기가 성행하면서 회의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난가는 본회를 비롯한 산란계 업계에서 농가들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농장 실거래 가격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매일 발표하는 산지·도매가격, 온라인 경매사이트에서 발표하는 가격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경로로 발표되다보니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실거래가격의 투명성이 약하다보니 유통인들만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고, 보상금 지급 등 기준을 삼고 있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의 발표가격마저 지역적으로 농장이나 유통센터를 통해 받는 자료라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다.

닭은 20주령부터 알을 생산하기 시작해 경제주령인 70주령을 넘어 80~90주령, 심지어 100주령까지 사육하면서 연장생산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경제주령을 넘은 늙은 닭에서 생산하는 계란은 품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게에 따라 모든 계란에 대해 동일하게 가격을 받는 지금의 시스템은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좋은 계란은 당연히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하고 주령이 오래된 계란이나 생산일자가 지나 품질이 떨어진 계란은 기준을 세워 가격 차이를 두어야 한다. 계란 가격을 좌우하는 것은 생산물량과 품질이지만 현재 구조로는 품질에 따른 차별화된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DC와 후장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주도하에 등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인 제도라서 참여율도 낮고 단지 상품란의 한 영역으로 전락하여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고 이 기준을 현장에서 적극 따라준다면 만약 계란이 모자랄 경우에는 품질이 낮은 계란이라도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으며, 과잉생산이 될 때에는 경제성을 따져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계군은 과감히 교체를 하게되어 수급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회 채란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학계 관계자들이 모여 계란품질규정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계란가격 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계란유통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길 기대해 본다. **양계**